‘공공의 외연’으로부터 ‘다양한 스펙트럼의 내포’로

박남희 (홍익대학교 MR 미디어 아트텍센터 연구교수,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교육사업본부장)

미술관은 공공성(公共性)을 본연의 정체감으로 한다. 공공선(公共善)을 향해 있는 공공성은 기준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정의가 쉽지 않다. 공공성은 정치적 용어로, 통치와 관계된다.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의 여불위(呂不韋, 미상 - B.C. 235)는 공공성을 통치의 중요한 정신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공공성이 확보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평화는 공공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옛 기록을 살펴보면 천하를 얻은 자가 많은데, 그들은 공공성으로 천하를 차지했고 편파성으로 천하를 잃었다. ……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천하이다. 음양의 조화는 한 종류에게만 도움을 주지 않고 제때 내리는 이슬과 비는 한 사물을 편애하지 않고 만인의 주체도 특정인을 편들지 않는다.(公則天下平矣. 平得於公, 嘗試觀於上志, 有得天下者衆矣, 其得之以公, 其失之必以偏. …… 天下非一人之天下也, 天下之天下. 陰陽之和, 不長一類. 甘露時雨, 不私一物. 萬民之主, 不阿一人.)” 진을 중심으로 통일제국을 염원했던 그는 ‘편애하지 않고, 편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천하’를 만드는 핵심 가치로 공공성을 제기하였다. 그러한 공평, 정대의 가치가 미술관의 공공성으로 이어진다면 본질적인 기능과 중첩하여 공공선의 유토피아에 다가가는 것이리라.

미술관의 공공성은 기원전 285년 프톨레마이오스(Ptolemaios) 1세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뮤제이온(Museion)으로부터 1793년 루브르궁이 국립미술관이 되기까지 미술관의 전(Pre)역사를 통해 점차 확대되었다. 19세기 이후 전문화된 전시 공간과 체계 구축기를 지나 오늘날 소통과 공유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욕망이 투영되면서 ‘공공의 외연(外延)’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내포(內包)’로 나아가고 있다. 설령 서구로부터 기인한 한국의 미술관 제도와 문화 인식이 1883년『한성순보(漢城旬報)』,「구라파주」 소개 기사에서 단초 되었을지라도, 동시대 미술관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내포’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듯하다.

특히 '공공의 외연'으로부터 '다양한 스펙트럼의 내포'로 향해가는 미술관의 공공적 태도는 소장품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소장품은 유무형의 자산이자 가치이며 미술관의 성격을 규정한다. 대부분 서구의 영향력 있는 미술관들은 이 같은 자산에 대한 소장 정책 실행과 소장품 연구와 전시를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견고한 미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미술관들이 현대미술의 장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부각시키는 것은 단연 소장품의 가치화와 담론이다. 그와 같은 미술관들의 제도적 선점과 제왕적 군림에도 반격할 수 없는 것은 지속적인 소장 정책의 구현과 전시 담론의 뒷받침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가 미술관의 문법처럼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유럽과 영미의 권력적 미술관들의 사례일 뿐 미술관 후발주자들의 세계에서는 말 그대로 넘사벽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도 미술관의 후발주자로서 규모와 영향력에 비해 소장품에 대한 정책과 연구를 통한 담론의 생성에서 좀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안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간접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1988년 건립된 서울시립미술관은 현재 서소문본관,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SeMA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SeMA 창고, SeMA 벙커, SeMA 백남준기념관으로 확장되었고, 지난 30여 년간 5000여점의 작품을 소장해왔다. 소장품에 대해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여러 기준으로 논의가 가능할 터이나, 대표작을 꼽으라면 쉽지 않다. 대체로 근현대미술사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들도 많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연구되지 않은 작품들이 많다. 이는 장기적인 비전의 소장 정책의 부재 때문이 아니다. 향후 체질에 맞는 소장 정책과 작품의 관리, 연구, 전시 등이 보완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소장된 작품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에서 제기한《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의 시도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기존 소장품에 대해 특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로 눈길을 끄는 영역은 크게 세 부분이다. 실제로 공공에게 물리적으로 개방된 작품들이 첫 번째 영역으로 주목된다. 다음으로 많은 이들이 '편애하지 않으며, 편들어주지' 않은 영역이 두 번째이다. 세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시각적 문법이나 가치를 발견하는 영역이다. 이들 세 영역으로의 구분은 임의적이지만, 공통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미술관 소장의 역할을 명확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한 것이다.

먼저 공공장소에서 대중에게 개방된 작품들의 역할에 주목한 측면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야외조각들로 분류되는 류인(1956-99)의 〈급행열차-시대의 변〉(1991)과 이웅배(1961-)의 〈공동체〉(2009, 2016재제작) 조각 설치는 관람객과 직접 만나는 작품이다. 류인의 작

품은 제목 그대로 시대정신이 뚜렷한 사회현실을 반영한 청동 조각 설치이다. 신체의 과장된 표현 속에 강한 고통이나 저항, 억압을 드러내는 조형적 표현이 극대화된 이 작품은 9명의 인간 군상이 다리에 힘을 주고 일렬로 서 있어 달려오는 그 무엇이라도 막아낼 기세다. 선두에 선 인물을 제외하고는 얼굴이 없다. 이 시대적 항변과 완전히 다른 면모의 이웅배의 작업은 북서울미술관 야외에 설치되어 '소통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푸른색과 노란색의 연결된 배관으로 만들어진 유기적 형태의 작업은 촉각성을 강조하여 관람객이 적극적으로 두드리거나 앉도록 의도된 것이다. 각각 직선으로 서 있는 군상과 연결된 배관의 유기적 형태로 완전히 다른 시대를 대변하는 두 작업은 공공에게 개방된 미술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며, 마주하는 이들에게 말 걸기를 쉬지 않는다.

다음으로 '편애하지 않으며, 편들어주지' 않았던 작품들의 소장에 대한 공공의 역할에 주목한 부분이다. 현실 참여적 발언의 작품들로, 여성주의 관점과 현실의 고통이 노출되는 사례들이다. 선호나 애호의 예술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상황의 작품들은 공공에서의 소장이 아니라면 소장이 어렵다. 시기적으로 민중미술이 한창이던 시기 김인순(1941-)의 〈그린힐 화재에서 스물두명의 딸들이 죽다〉(1988), 〈파출소에서 일어난 강간〉(1989)은 비극적 현실의 한 장면을 기록한 작품들이다. 실제 사건을 토대로 그린 이들 작품은 사회현실의 고발 또는 현실참여의 발언의 한 장면이면서 특히 여성의 피해에 주목하였다. 나약한 여성 노동자의 화재 피해나 성적 유린의 사건 기록으로 여성주의의 관점을 명백히 드러냈다. 다른 맥락에서 일상의 밝은 꽃들 이면에 가시와 상처로 얼룩져있는 현실을 그려낸 박재철(1968-)의 〈비천한 길Ⅱ〉(2017) 역시 자전적일지라도 서사의 강도가 세다. 예술의 가치가 아름답기 이전에 진실이어야 하는 존재적 명제가 분명하다.

세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시각적 문법이나 가치를 발견하는 측면에 주목한 영역이다. 작가의 특별한 개성이나 독창적 표현에의 발견은 공공의 역할 중 하나이다. 남상수의 〈어쩌면 이미 당신이 아는 게임II〉(2012)과 같이 스포츠 경기장을 소재로 한 작품의 위트 넘치는 비틀어 보기는 무한대로 반복하게 만든 트랙의 패턴처럼 냉혹한 경쟁사회와 불공정한 조건에 대한 재현으로서 반전의 발견이다. 아주 다른 예로 윤세열(1976-)의 〈산수(山水)-강변북로〉(2017)는 그림과 문자가 하나를 이루는 평면이다. 현재와 과거의 순간이 만나지거나, 실경처럼 보이지만 기억이 접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의 작업은 얼핏 보면 가는 필촉으로 산수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한글자모가 쌓여서 형과 면을 만들고 있다. 박능생(1973-)의 〈서울풍경도 Ⅶ〉(2017) 역시 서울을 조망한 풍경인데, 육화된 장소성의 재현으로서 캔버스에 아크릴로 섬세한 관악산 아래 풍경을 다각적 시선을

종합하여 이동시선의 파노라마 구성으로 완성하였다. 카메라 렌즈가 하는 역할을 눈과 다리가 조율하며 실경에 이르러 조밀하고 견고한 화면에 이른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가운데, '오픈, 해킹, 채굴'의 관점에서 특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즉해서 몇몇 작품을 살펴보았다. 미술관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가치가 유입되면 그에 따라 성격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미술관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사적 공간이자 동시대 삶의 다층적 공간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데 있다.

본 원고는《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021.01.26 ~ 2021.04.11.)의 도록『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2021)에 수록되었습니다.

© 작가, 저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연구실 '코랄'에 수록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작가, 저자,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으며, 저작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